

21세기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주역, 장로회신학대학교

서 정 운
장로회신학대 총장



1. 연 혁

1) 교육 이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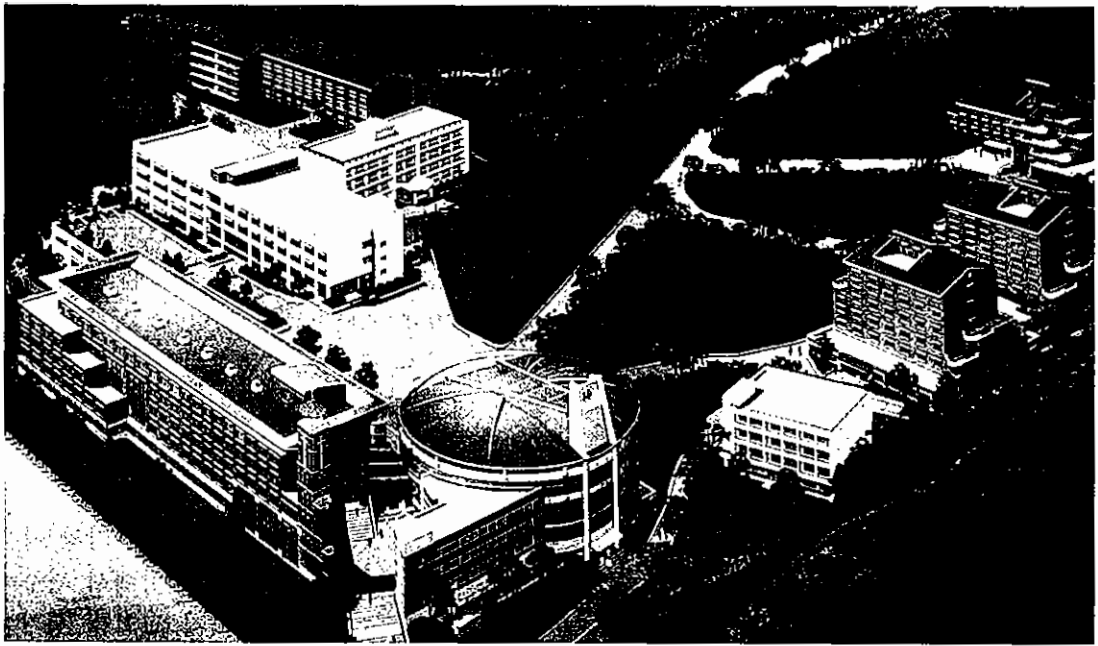
본교는 경건과 학문이라는 학훈 아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신과 이웃, 교회와 민족, 그리고 인류와 모든 피조세계를 사랑하여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세상을 구현하는 데 헌신하려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곳이다. 경건으로 우리 학문의 질을 더욱 높여가고, 참된 지식으로 우리의 경건을 더욱 깊게 뿌리내리는 ‘경건과 학문’의 훈련의 장이다.

교육 이념은 기독교정신과 민주교육의 근본이념으로서, 이에 입각하여 대한예수교장

로회 산하에서 장로교 신조와 헌법에 기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지도자와 교역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설립 배경 및 발자취

본교는 1885년 우리나라에 최초의 목사 선교사로서 내한한 호러스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에게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가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시작하면서, 선교와 교역을 위한 교역자 양성의 필요성을 느껴 자기 집 사랑방에서 소년들 몇을 모아 놓고 신학 교육을 시작한 것이 본교의 효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설립은 미국 북장로회, 남장로회, 캐나다



▲ 장로회신학대학교는 '경건과 학문'이라는 확신 아래 세계의 중심적인 신학교로 성장하고 있다.

장로회, 호주 장로회 등 네 개 장로회 선교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장로회 공의회'가 신학교를 평양에 설립하기로 결의한 데서 시작되었다.

북장로회 선교사 마펫(Samuel A. Moffet)은 평양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1901년부터 김종섭, 방기창 두 사람을 데리고 그의 사랑방에서 신학기반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1903년 공의회는 이를 '장로회신학교'로 설립하기로 결의하여 공식적으로 신학교육이 시작되었다.

1907년 길선주, 한석진, 이기풍 등 7명이 처음으로 졸업하였고, 이 분들이 한국 장로교회의 첫 목사들로서 안수되었다. 1912년에는 김영훈, 사병순, 박태로 세 분 목사가 선교사로 파송되어 해외 선교를 시작하였다.

1919년 기미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는 민족대표 33인 중에 본교 출신의 길선주, 방기창 목사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신학교

학생들이 다수 이 운동의 선두에 나서 활동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체포되어 학교가 일시 휴교할 수밖에 없었다. 일제의 갖은 억압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의연히 그 임무를 수행해 왔으나, 1938년 장로회 총회의 신사참배 불법 선포로 말미암아 이에 뜻을 같이한 신학교는 무기 휴교되고 말았다. 당시의 많은 교회지도자들이 변절하여 일제에 부역하였지만 주기철, 최보석 목사 등 적지 않은 본교 출신 목사들이 꺾이지 않은 항일 신앙투쟁으로 옥중에서 장렬히 순교함으로써 그 빛나는 삶을 마치기도 하였다.

1945년 해방이 되자 북한에는 공산정권이 수립되어 자연히 신학교가 폐쇄되었고, 1953년 총회는 대구에서 총회신학교를 시작하여 후에 서울로 옮겨오게 되었다.

본교는 1961년 문교부로부터 대학인가를 받아 1966년에 대학원을 설립하고, 1973년에 '장로회신학대학'으로 개명하였으며,

1980년에는 신학대학원(M. Div.) 설립인가를 받았다. 1993년 '장로회신학대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94년에 세계선교대학원의 설립인가를, 1995년에는 교역대학원, 교육대학원 설립인가를, 1996년에는 교회음악대학원 설립인가를 받았다.

2. 현 황

1) 대학 현황

본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53번지에 자리잡고 있다. 먼저 대학부에는 신학과, 기독교교육과, 교회음악학과가 있으며, 본 교단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원의 신학과, 목회연구과정, 대학원의 신학과, 기독교교육학과, 교회음악학과, 연구과정, 신학박사과정, 세계선교대학원, 교역대학원, 교육대학원, 교회음악대학원이 있다. 재학생은 대학교 549명, 신학대학원 1,176명, 대학원 233명, 세계선교대학원 37명, 교역대학원 66명, 교육대학원 등에 22명이 재학하고 있다. 본교의 총 교지는 1만8천 평으로 종합관, 마포삼열기념관 및 이상조기념도서관, 환경직기념예배당, 기숙사, 학생회관, 선교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2)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① 도서관

도서관은 고 이상조 목사(본교 1919년 졸업) 아들인 이월렴 장로(영락교회)와 그의 부인 김흥순 집사의 성금으로 건축되었다. 이상조 기념 도서관은 1996년 신축한 마포삼열 기념관에 위치하며 1,077평 넓이에 822석의 열람석, 10만여 권의 장서, 430여종의 정기간행물 및 고서와 비도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1960년 도서관을 개관한 이

래 서고, 참고열람실, 연속간행물실 등 전관을 완전개가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산망을 통하여 교내 어디에서든지 도서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으며, CD-NET, 인터넷도 검색 가능하다. 단행본 및 정기간행물의 기사 색인이 되어 있으며, 본교 설립자인 마포삼열 목사를 기념하기 위한 마켓 기념자료실이 있다. 스위스 로허교수 장서 구입으로 종교개혁에 관한 도서 및 세계 각국어 성경 소장이 본 도서관 장서의 특징이다.

② 생활관

남·여 생활관은 각각 교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자리하고 있다. 지방에서 거주하는 학생들과 전국에 흩어져 교회를 섬기는 신학생들의 보금자리로 생활관은 필수적 시설이다. 뿐만 아니라 영성훈련의 장으로서 입사하는 모든 학생들의 영성훈련을 담당하는 곳이기도 하다. 남생활관은 660명, 여생활관은 1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③ 부설기관

본 교단 산하 교역자의 계속교육을 위한 목사계속교육원, 무한한 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교회와 선교에 기여하기 위한 교회여성지도자교육원 및 정보화시대의 효과적인 목회와 신학연구의 조성을 위한 전산교육원이 있다. 연구원으로는 교회와 음악연구원, 기독교교육연구원, 성서학연구원, 성지연구원, 세계선교연구원, 역사와 신학연구원이 있다.

3. 대학의 특성

첫째, 장로회신학대학교는 대한예수교장

로회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로서 장로교회, 특히 개혁교회 전통에 뿌리를 박고있는 신학대학교이다. 역사적으로 바른 고백으로 인정되어온 바울과 어거스틴, 루터, 칼빈으로 이어지는 교회의 전통을 복음의 좋은 안내자로 삼는다. 성서와 전통에 충실하여 항상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여 그때마다 스스로를 개혁해 가며, 변천하는 사회와 함께 복음이 때마다 새로운 감각으로 들리도록 부단히 새 옷을 입혀 내어놓는 신학교이다.

둘째, 장로회신학대학교는 본 교단의 신앙과 신학의 요람이며, 21세기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중심인 신학교이다. 본교는 '평양에서 광나루'까지 어언 97년의 결코 만만치 않은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까지 대학교 2,529명, 신학대학원 12,343명, 대학원 1,558명, 세계선교대학원 2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본교는 복음 사역에 바탕이 되는 신학과, 기독교교육과, 교회음악학과 등 3개의 학과를 대학부에 두어 국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지도자와 교역자를 양성하고 있다.

① 신학과는 신학연구의 기초를 연마하게 하여 더 넓은 신학수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러나 신학과 4년 과정의 졸업만으로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며, 본 교단 목회자 양성기관인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여 3년 과정을 마친 후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② 기독교교육과는 교회를 위한 교역자의 교육자적 자질은 물론 교회와 사회 속의 평신도의 지도력 개발을 위한 교육목사, 교육전문가, 교육실무자 등을 양성하고 있다. 졸업자들은 신학대학원을 거쳐 교역자가 되거나, 중·고교 교사로 진출하거나, 교회교육 지도와 기독교 계통 각 기관 교육분야에서

교육실무자로 일하고 있다.

③ 교회음악학과는 음악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와 교회의 음악전문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 성가대 지휘, 오르간 반주 등을 중심으로 실제 훈련과 이론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졸업후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여 신학과 음악을 동시에 공부할 수 있고, 장차 목회자가 되어 교회음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일을 맡게 되므로 이 학과 교육은 '예술'보다는 '봉사'에 더 비중을 둔다.

본 교단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신학대학원 신학과에서 3년 또는 목회연구과정에서 1년을 이수해야 한다. 본교의 신학대학원은 대학 졸업자를 선발하여 목회자를 양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목회자 양성 기관이다. 신학교육과 경건 훈련을 통해 교회와 사회의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교육하는 목회자 양성 전문과정이다. 또한 한국 사회와 교회의 지도자적 인격과 독창적 능력을 함양하며 깊은 학문적 연구와 교육을 위한 일반대학원, 전문적인 선교 지도자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세계선교대학원, 목회현장에서 목회하는 교역자들을 교육하는 교역대학원, 기독교교육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그들의 계속교육을 통하여 기독교교육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대학원, 질 높은 교회음악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회음악대학원이 있다.

이밖에도 21세기 세계선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재학생들에게 견습선교사 제도를 시행하여 재학중 견습선교사로 파송해 1년 동안 타문화권 또는 다른 종교권 선교 현지에서 실제 환경을 경험하게 하고 있으며, 본 교단 선교사의 해외 파송을 위해 선교사 파송훈련 및 제3세계 지도자 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세계선교의 선도적인 길을

개척하고 있다. 한국과 북한선교, 남북통일 및 세계복음화라는 입박한 과제를 위해 본교는 1993년 세계선교대학원을 설립하였다.

셋째, 본교는 세계의 중심적인 신학교로 성장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풀러 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 루이빌장로회 신학교(Louisvill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맥코믹 신학교(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 Overseas Ministries Study Center(OMSC), 유니온 신학교(Union Theological Seminary), 웨스트민스터 대학(Westminster College), 캐나다의 녹스 대학(Knox College),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University of Edinburgh), 중국의 복두 대학(Fudan University) 등 9개 신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미국, 스웨덴, 체코, 러시아, 중국의 8개 신학교 및 연구소와 협력관계를 맺어 국제 교류를 통한 세계적인 신학교로 성장하고 있다.

4. 발전 계획

21세기는 우리 민족사와 교회 역사에 매우 중요한 세기가 될 것이다. 통일과 그 이후의 복잡하고 거대한 과제들이 우리의 할 일이 될 것이다.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21세기의 교회와 역사 창조에 헌신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용기가 있는 성실하고 유능한 일꾼들을 배출하는 책임이 본교에 주어져 있다. 1996년 2월 본교는 교단 산하 노회, 교회, 기관단체, 성도들의 헌금과 협조로 예배당, 도서관, 행정관, 교수연구실, 음악관 및 생활관 등 총 5,981평의 시설과 기본적인 교내 환경 정비를 마쳤다. 이제부터 본교는 다음의 네 가지 발전과제를 중심

으로 하여 21세기를 향한 내실 있는 신학교육을 정립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적 독자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국제 협력과 선교의 책임을 담당해야 하며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것이다.

둘째, 참으로 경건한 영적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일꾼들을 배출하는 것이다. 본교는 매주 화, 수, 목, 금요일에 전교생이 함께 드리는 경건회와 새벽기도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봄과 가을에 신앙사경회를 열고 8백명의 기숙사 학생을 중심으로 경건생활을 지도하고 있다.

셋째, 교수들의 연구여건 개선과 학생들의 경건생활의 실제화, 대학평가인정제의 평가기준을 충족시키는 질적 수월성 확보, 교수·직원의 정예화와 의욕고취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넷째, 대한민국에서 등록금이 가장 싼 사립대학교가 되는 것이 본교의 목표로서,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등록금을 덜 내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단 산하 교회들이 학생 개인에게 보내주는 장학금을 학교에 보내주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고 학교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다.

교회의 미래는 신학교에 달려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생명력을 얻고 성숙하고 부흥해야 하는데 그 중심이 신학교이다. 신학교에서 어떤 학생을 배출하느냐에 교단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이다. 총회 직영 신학교로서 교회와 신학교가 일체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21세기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중심 신학교로 성장 발전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칭찬과 교회와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신학교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